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차이

Difference of Sagunja Temperament type o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정미영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Mi-Young Jung(jungmy@tu.ac.kr)

요약

본 연구는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차이 연구이다. 부산 소재 대학 생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첫째, 기질 유형은 국화, 난초, 매화, 대나무 기질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군자 기질 유형별 의사소통 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나무 기질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매화, 난초, 국화 기질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은 자 기노출하기, 대인갈등 다루기를 제외한 '처음관계 맺기'와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 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한국인 정서에 맞는 사군자기질을 접목하여 우리 전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사군자기질 유형 | 의사소통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Sagunja Temperament. As a result of studying 35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the first, Temperament type was chrysanthemum, orchid, plum, and bamboo temperam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ies by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there was the highest communication ability of bamboo substrat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um, orchid, and chrysanthemum.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first relationship', 'claiming other people's displeasure',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excluding self-exposure and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the difference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that tried to reinterpret our tradition in various aspects by applying the Sagunja Temperament that matches the Korean emotion.

■ keyword : | Sagunja Temperament | Communication Ability |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5A052)

접수일자 : 2017년 07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23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정미영, e-mail : jungmy@tu.ac.kr

I. 서론

1. 문제 제기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 나름대로의 독특한 동기요인에 의해 일정한 방식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동 패턴으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유지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활은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있는데[1], 이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선정[2]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직업기초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선정되었다[3]. 결국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인관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독특한 대인관계 양식을 보여주는 자신의 성격 및 기질 유형을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성격, 기질 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질 유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확충할 수 있다[4].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유형 차이가 나쁘거나 잘못되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자란 줄기와 잎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각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자신만의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의 행동 및 기질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고객의 행동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 대인관계 등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유형 검사도구

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s), 에니어그램(Enneagram), DISC(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등이 있다[5]. 그동안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유형 검사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수이며, 이들 검사들의 이론은 한국화하지 않고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맞게 개선된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Keirsey[6]의 기질 이론이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사군자로 설명하였기에 누구나 쉽게 기질 차이를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자는 Keirsey[6]가 서구에서 분류한 4가지 기질과 동양에 있는 사군자 분류방식 간에 서로 유사성이 있음을 밝힌 김종구[9]의 사군자 기질이 한국인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 정서에 맞는 사군자기질 검사를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한국인 대학생의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기질(매난국죽) 유형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각 학생의 기질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시기에 학생들의 지도 등에도 도움이 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있는 사군자 기질 유형을 접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먼저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의 사군자기질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차이를 파악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결과 기대 효과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사군자기질 유형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여러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요건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켜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군자 기질 유형

본 연구는 David Keirsey[6]의 기질이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사군자 기질 4가지 유형(매난국죽)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군자(君子)란 명칭은 선조들이 유교에서 지향하는 인품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켰으며[7], 매난국죽(梅蘭菊竹-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을 소재로 하여 수묵으로 그린 묵매, 묵란, 묵국, 묵죽을 합해서 사군자라 불렀다[8]. 이 4가지 식물의 타고난 특성 역시 군자를 닮았다하여 비유[9]하였는데, 매난국죽은 각각 사계절을 대표하는 식물로서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10].

Keirsey[6]는 MBTI 성격유형별 기질에서 SP형(감각적 인식형-예술가적 기질), SJ형(감각적 판단형-보호자적 기질), NF형(직관적 감정형-이상가적 기질), NT형(직관적사고형-합리적 기질)으로 분류하였다[13]. 다음은 본 연구에서 다룬 사군자 4가지 기질 유형들이다.

첫째,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특성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이며, 지조 있고 고상한 여인에 비유된다[11].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12]. Keirsey[6]는 보호자 기질이 가장 준비성이 철저한 기질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역경과 실패를 미리 대비하는 점에서 봄의 기질인 매화와 유사하다. 또한 매화는 꽃이 피고, 사군자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다. 매화의 이런 참고 견디는 인내와 끈기는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거나, 에피메테우시가 판도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었던 보호자 기질[6]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매화기질은 MBTI와의 상관관계 결과[9], J형(판단)처럼 사실적이고, 철저 및 체계적이며, 성실과 꼼꼼함, 한결같은 점 등이 보호자기질[6]과 상당부분 흡사하다.

둘째, 난초는 인위적인 환경인 화분에 갇혀 있을 때 잘 말라 죽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며, 구속 및 속박 받는 것, 제약받는 것, 의무지는 것을 싫어하며, 지나친 것을 꺼리는 특성이 있다

[10]. 또한 즐겁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난초의 특성은 바쁘더라도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을 확보하기 좋아하는 예술가기질과 유사하다[6]. 김종구[9]는 난초와 MBTI 기질과의 상관관계 결과, P(인식)는 디오니소스의 자유동기를 가진 예술가기질로 분류되며 상관을 보였다.

셋째, 국화는 결실의 계절로 풍요롭지만 때때로 쓸쓸하고 고독을 느끼게 하며, 모든 꽃이 지고 없어지는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홀로 꽃을 핀다. 이는 다른 꽃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14]이며, 삶의 마지막 자리인 조문하는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게 한다. 이런 국화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국화는 줄기를 자르고 철사로 고정하면 동물모양, 한반도 모양, 하트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보다 외부에서 조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화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재주가 뛰어나며, 관계를 중시하여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주려는 이사가 기질[6]과 닮았다고 하겠다.

넷째, 대나무는 땅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며, 가장 빠른 시간에 계속해서 위를 향해 하늘을 높이 올라간다. 사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대나무의 특성은 반드시 유능해지고 싶은 욕망의 절실함이 있다[9]. 흔히 대나무를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를 쪼갠 듯이 곧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불의나 부정과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말한다[15]. 그래서 대나무는 단단하고, 바르고, 속이 비어 있어 걸을 따라 여러 굽고 쪼갤 수 있으며, 때로는 머리카락 수준까지 정교하고 가늘게 쪼갤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뿌리를 멀리 뻗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특성이 있는데, 실체를 이해하고 통제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이며 냉정하게 판단하는 특성을 가지는 등 지적 욕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지식을 쌓는데 집착하는 측면에서 합리가 기질과 닮았다[9]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나무는 분석적이어서 과학, 수학, 철학, 건축,

공학 등 논리적 및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하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이란 사람 사이의 느낌과 생각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사람들 간의 경험영역을 공유하고, 정보, 감정, 태도, 생각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며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16]. 의사소통은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스피치, 발표, 말하기, 자기표현, 자기주장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개념을 포괄적 개념의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Rubin(1990)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지식으로 대화 참여자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하였으며, 이준웅(1990)은 “언어적 유창성만이 아니라 대인적 상호작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황적 적절성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허경호[18]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도록 15가지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으로 측정된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 적응력 및 의사소통 공포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조직의 성과 및 사회화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Gardner[19] 등이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Steve and Campion(1994)은 조직 내 또는 조직 외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라고 정의[20]하였으며, Miller(2001)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적, 상호의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 Kim et al(2001)은 “상황인식을 토대로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간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

하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21].

이렇게 대인관계가 인간 실존에 필연적인 요소로써 발달단계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능력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22]하며, 대학생활 적응과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결정지을 수 있기에[23]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중 김선주 외 연구[24]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중 하나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선행연구[25-29]들에서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 기질(매난국죽)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산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50부를 먼저 사전 조사한 후, 설문지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최종 설문지를 2016년 11월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 설문지 작성법, 자유 의지에 따른 연구 참여와 철회 결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5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응답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결과 분석에는 335부만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사군자 기질 유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을 평가하기 위

하여 David Keirse[6]가 분류한 4가지 기질 이론을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사군자로 설명한 김종구[9]의 사군자 기질검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구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적용하였다. 사군자 기질검사는 Keirse[6]가 보호자 기질, 예술가 기질, 이상가 기질, 합리적 기질로 구분한 것을 사군자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그림 특성과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재해석하였다. 여기에 김종구[9]는 4가지 기질에 Jung의 외향-내향 특성을 추가하여 각 기질을 8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4가지 하위변인만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기질 유형에 해당하는 4개의 단어(총 20개 문항, 기질 척도 80개 단어) 중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표하고, 다음으로 가까운 단어에 △표하도록 하였다. 최종 본 연구에 사용된 기질 유형 결정은 각 문항별로 (●◆★■) 부호를 활용하였으며, ○표한 단어는 2점, △표한 단어는 1점의 점수를 부여 및 합산하여 조사대상자의 사군자 기질로 진단하였다. 결국 응답자들이 본인이 어떤 사군자 기질인지 유추가 안 되도록 측정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3.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허경호[18]가 유일하게 한국인들에게 맞도록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과,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15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은 1개의 진술문으로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현력’과 ‘반응력’은 언어 및 비언어 요소로 구분하여 2개의 진술문으로 나누었다. 결국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3.3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30]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

대, 김수임[3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의 5가지 영역(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관계 맺기는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뜻하고, 자기노출은 친밀감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은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려 타인을 지지하고 조언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는 정도를 예언한다고 할 수 있다[32].

표 1. 대인관계 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처음 관계 맺기	1,6,11,16,21,26,31,36	8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2,7,12,17,22,27,32,37	8
자기노출	3,8,13,18,23,28,33,38	8
정서적지지 및 조언	4,9,14,19,24*,29,34,39	8
대인갈등 다루기	5,10*,15,20,25,30,35,40*	8

(*은 역채점 문항임 - 10, 24, 40)

4. 자료 분석

측정도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 통계프로그램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빈도 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4)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변인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방법인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사군자기질 분포

본 연구대상의 사군자 기질 유형은 매화기질이 59명(17.6%), 난초기질이 115명(34.3%), 국화기질이 123명(36.7%), 대나무기질이 38명(11.3%)으로 대학생들의 사군자 기질유형 중 국화기질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난초기질(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63명(48.7%), 여학생이 172명(51.3%)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경우 난초기질 유형이 33.1%, 국화기질 유형이 32.5%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난초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국화 기질이 40.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난초기질이 33.55%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19세~29세로 평균연령은 21.98세(SD=1.770)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89명(26.6%), 2학년이 123명(36.7%), 3학년은 84명(25.1%), 4학년은 39명(11.65)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은 인문사회대학이 125명(37.3%), 공과대학은 90명(26.95), 건축디자인대학은 15명(4.5%), 상경대학은 53명(15.8%), 보건복지대학은 14명(4.2%), 간호대학은 37명(11.05), 기타는 1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군자기질 유형 분포

(N=335)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명)	남성	여성	전체 비율 (%)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사군자 기질	매화	59	34	25	17.6	학년	1학년	89	26.6	
	난초	115	54	61	34.3		2학년	123	36.7	
	국화	123	53	70	36.7		3학년	84	25.1	
	대나무	38	22	16	11.3		4학년	39	11.6	
성별	남성	163		48.7		전공	나이	19	17	5.1
	여성	172		51.3				20	61	18.2
전공	인문사회대학	125		37.3				21	71	21.2
	공과대학	90		26.9				22	58	17.3
	건축디자인대학	15		4.5				23	61	18.2
	상경대학	53		15.8				24	38	11.3
	보건복지교육대학	14		4.2				25	20	6.0
	간호대학	37		11.0				26	7	2.1
	기타	1		.3		27	1	.3		
					29	1	.3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2.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인 중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요인을 빼고는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α계수가 .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67로 나타났다으며, 대인관계 능력은 각각 처음관계맺기는 .820,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562, 자기노출은 '나는 가까운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항목을 삭제한 후 Cronbach's α가 .602가 되어 그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은 .704가 나타났으며, 대인갈등 다루기는 .69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증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 3]과 같이 대부분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 평가기준인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변수명	요인명	측정 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의사소통 능력		말(언어적표현)로 잘 표현한다.	.758	.843	3,816	47,696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710		.831	10,389
		내 대화는 효율적이다.	.700		.779	9,741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간다.	.691		.678	8,471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690		.580	7,250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언어적)로 알린다.	.671		.488	6,100
		내 자신을 표정이나 제스처 등(비언어적 표현)으로 잘 표현한다.	.667		.475	5,936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32		.353	4,418
대인관계 능력	처음관계 맺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함께하자고 제안	.798	.820	5,355	26.8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함	.687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677			
		낯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674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직접 소개가능	.592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유쾌한 일	.573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정당하게 항의	.542	.562	1,856	9.3
		친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싫을 때, 그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745			
		친구 혹은 애인이 나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727			
	자기노출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다.	.603	.602	1,367	6.8
		친한 친구에게 나의 약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799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알린다.	.671			
	정서적지지 및 조언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나에게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560	.704	1,281	6.4
		친해지고 싶은 상대에게 나의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	.731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	.687			
		가까운 사람이 우울할 때, 위로할 수 있다.	.686			
	대인갈등 다루기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546	.699	1,223	6.1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된다.	.770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733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560			

2.2 타당도 검증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요인분석도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하위요인들인 ‘처음관계맺기’는 총 7개 문항으로,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3개 문항, ‘자기노출’은 3개 문항, ‘정서적 지지 및 조언’요인은 4개 문항, ‘대인갈등 다루기’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 항목들이 묶였으며, 이들 측정 항목들이 각 요인적재값이 .5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각각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항목들의 KMO가 .851로 나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757.631,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55.407%이었다.

요인 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값 기준을 적용하여 1 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시 각 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 적재값이 .4 이상인 문항을 고려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항목들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6 이하이면 항목들 간의 상관성이 없어 요인분석 항목들로 적당하지 않다.

3.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차이 검증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화기질이 24.75점, 난초는 24.69점, 국화 25.62점, 대나무 27.92점으로 대나무 기질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F값이

6.974,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매화와 대나무, 난초와 대나무, 국화와 대나무, 대나무와 국화 기질 간에 $p < .05$ 수준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대나무기질이 처음 관계 맺기에서 22.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기도 대나무 기질이 9점으로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노출과 정서적지지 및 조언, 그리고 대인 갈등 다루기는 국화기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처음관계 맺기($F=3.383, P < .05$), 타인 불쾌감 주장($F=3.159, P < .05$), 정서적지지($F=6.170, 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자기 노출하기와 대인 갈등 다루기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은 ‘처음관계 맺기와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처음관계 맺기에서는 매화와 대나무

기질 간에, 그리고 타인 불쾌감 주장에서는 국화와 대나무 기질 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에서는 난초와 국화기질 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4.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분석 방법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처음관계 맺기,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자기노출하기, 정서적 지지하기, 대인갈등 다루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 중 하위변인인 처음관계 맺기($r=.511, p < .001$),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r=.393, p < .001$),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기($r=.453, p < .001$), 대인갈등 다루기($r=.188, p < .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5]. 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도록 대인관계를 할 때 ‘처음 관계 맺기’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기, 불쾌감 주장하기, 대인 갈등 다루기’ 순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표 4.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차이

		Mean(SD)				F	P
		매화(n=59)	난초(n=115)	국화(n=123)	대나무(n=38)		
의사소통 능력		24.75(3.74)	24.69(3.91)	25.62(4.11)	27.92(4.08)	24.75	3.74
대인관계능력	처음관계맺기	19.57(4.50)	20.87(4.31)	21.17(3.66)	22.14(4.21)	3.383	0.018
	타인불쾌감 주장	8.41(1.63)	8.61(1.55)	8.15(1.74)	9.00(1.56)	3.159	0.025
	자기노출	2.23(0.65)	2.25(0.46)	2.37(0.53)	2.34(0.49)	1.494	0.216
	정서적지지 및 조언	12.67(1.86)	12.23(1.84)	13.22(1.75)	12.42(1.90)	6.170	0.000
	대인갈등 다루기	7.98(1.26)	8.02(1.10)	8.10(1.20)	7.82(1.12)	0.574	0.632

표 5.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 능력	처음 관계 맺기	타인 불쾌감 주장	자기 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
의사소통 능력	1					
처음 관계 맺기	.511**	1				
타인불쾌감 주장	.393**	.326**	1			
자기 노출	.031	.057	.037	1		
정서적지지 및 조언	.453**	.399**	.244**	.104	1	
대인 갈등 다루기	.188**	.041	.065	.099	.238**	1

**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사군자 기질검사를 적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 기질(매난국죽)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유형은 국화와 난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매화, 대나무 기질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MBTI 심리기질 유형에서는 SJ형(매화), SP형(난초), NF형(국화), NT형(대나무)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33], 이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책임과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자기질(감각적 판단형 SJ)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간호사 자질에 부합하는 유형이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이 대상이기에 조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중 대나무 기질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화, 매화, 난초 순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을 확인하는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관련 선행연구인 MBTI의 4가지 심리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결과[34]는 NF(직관적 감정형 - 이상가 기질 : 국화)형이 가장 높았으며, SP(감각적 인식형 - 예술가 기질 : 난초)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물론 선행연구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나무 및 국화 기질은 기질적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민감성이 높기에[9] 다른 기질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난초기질(예술가기질, 감각적 인식형)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충동적이며 구속을 싫어하고 의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9] 다른 사군자 기질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군자기질별로도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24][25][28][29][34]에서 밝혀낸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과적

인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곧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행동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36]. 다시 말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6]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재주가 뛰어나며,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주려는 국화 기질과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의무 지는 것을 싫어하는 난초 기질[9]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사군자 기질유형 성향에 맞도록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덕목 중 필수 요건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37]. 근래 기업체에서도 개인의 행동유형 분석을 통해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은 물론 조직 전체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도 활용[4]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학교 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며 키워나가야 할 역량이다. 선행연구들에서 MBTI는 한국 사회에 상담, 교육,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마치 암호화 같은 4개의 코드가 조합된 16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자신과 타인의 유형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9]. 반면에 사군자기질 유형검사는 기질 간의 역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며, 기질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직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기질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질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질의 장점을 고려한 인사배치에 적용할 수 있고, 기질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찾아 대학생들의 기질을 고려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군자기질을 대학생에게 접목하여 한국 대학생의 기질 특성과 연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전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등 여러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유의한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 지역 대학생으로 국한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군자 기질 유형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후의 연구에서는 사군자 기질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정유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2]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영, 송선영, “국가수준의 생애능력표준설정 및 학습체계 질관리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pp.31-54, 2002
- [3] 진미석, 이수영, 유한구, 채창균, 박천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10-48, 2007.
- [4] 김학년, 윤대혁, “성격유형과 통제위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4권 특별호, pp.65-91, 2007
- [5] 장현정, 김명애,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기질과 학습유형 및 학습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400-410, 2014.
- [6] D. W. Keirsey, *Please understand me II : Temperament character intelligence*, Del Mar, California :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1999.
- [7] 이선옥, “매란국죽 사군자(四君子) 이야기-사군자란 무엇인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10호, pp.189-199, 2016.
- [8] 이준웅 “수상 : 사군자,”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기전자재료, 제20권, 제1호, pp.64-65, 2007.
- [9] 김종구, *Keirsey 이론과 외향-내향을 활용한 사군자 기질검사 개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상담학, 박사학위논문, 2013.
- [10] 이선옥, *선비의 벗 사군자*, 과주 : 보림, 2005.
- [11] 이선옥, *매란국죽 사군자(四君子) 이야기-사군자란 무엇인가*, 오늘의 가사문학, 제10호, pp.189-199, 2016.
- [12] 장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사군자의 상징의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3] D. Keirsey and M. Bate, *Please understand me II: Character and temperament types*, Prometheus Nemesis Book Company, CA., 1984.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역, *나의 모습, 나의 얼굴*, 한국심리연구소, 1999.
- [14] 이선옥, *사군자,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 돌베개, 2011.
- [15]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 교보문고, 2000.
- [16] J. Warner,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liding profile*, HRD Press, 2007.
- [17] S.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a group coaching program to improve undergraduates’ interpersonal skill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Kwangwoon, 2012.
- [18]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제47권, 2003.
- [19] H. Gardner, M. Kornhaber, and W. K. Wake, *Intelligence: multiple perspective*, Wadsworth Publishing, 1995.
- [20] M. Steven and M. Champion, “The knowledge,

- skilled ability requirements for teamwork: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Vol.20, pp.503-530, Jun. 1994.
- [21] T.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Ajou University, 2011.
- [22] 김혁권,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 [23] 김은주,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가족요인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4] 김선주, 김한홍, "일부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과학회, 제13권, 제3호, pp.304-313, 2013.
- [25] 명성민, "물리치료사의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21권, 제2호, pp.123-129, 2016.
- [26] 정혜선, 이기령,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데이터분석 사회, 제14권, 제5호, pp.2635-2647, 2012.
- [27] 권진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4권, 제1호, pp.37-49, 2011
- [28] 황보식, 장해숙,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6권, 제3호, pp.11-26, 2016.
- [29] 이어진, 최수미,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pp.209-224, 2015.
- [30]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 [31] 김창대, 김수임,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제35권, 제1호, pp.83-95, 2001.
- [32] 이정희, *성인에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 [33] 채명옥,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7권, 제4호, pp.303-311, 2016.
- [34] 박정원, 최명숙, "간호대학생의 자의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51-360, 2009.
- [35] 권진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4권, 제1호, pp.37-49, 2011.
- [36]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4.
- [3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282486615959096&DCD=A00703&OutLnkChk=Y>

저 자 소 개

정 미 영(Mi-Young Jung)

정회원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
- 1999년 2월 :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석사)
- 2013년 4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커뮤니케이션, 언어 및 비언어 소통, 프레젠테이션, 미디어 글쓰기